

# 사유지 임대해 주차장 확충하는 판에 함평군 공유지 특정업체 주차장 임대

### 380㎡ 특정업소와 10년 재계약 주민들 “공공주차장 조성해야” 비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겠다”

함평군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공유지를 특정업소에 주차장 용도로 장기 임대해 계약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유지를 임대해 주차장을 확충하는 상황인데, 되레 공공부지를 민간에 임대해 특혜를 주는 공익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 함평읍 기차리 258-11 외 2필지의 국·공유지 380㎡(약 115평)를 지역 유명 카페 관계자에게 주차장 용도로 10년간 장기 임대 재계약했다.

이곳은 함평군 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천지한 우비빔발가락 등이 있고 함평나비축제가 열리는 장소와 인접한 중심 상업지역으로 평소 관광객 등이 몰리면서 주차 민원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 혼잡지역이다.

주민들은 이런 요지에 있는 공공부지를 공익을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특정업소가 사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재계약하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지역



함평군이 주차장 용도로 장기 임대해 계약한 주차장 부지.

주민들과 약속한 상황을 반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업무 부서장인 김연근 건설교통과장은 지난해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용지를 재임대하지 않고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입장을 뒤집어 카페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또 김 과장은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적법하게 진행된 계약”이라는 견해를 밝히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함평읍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수의 사유지를 임대해 임시 주차장을 조성한 실무과정의 태도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공공주차장 조성을 기대했으나, 결국 민간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귀찮았다”라며 “공공의 재산을 특정 업체에 헐값에 내주고, 동시에 다른 곳에 세금으로 사유지를 임대하는 이중 행정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실질적인 개선이나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함평군의회는 최근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31일 강진만 생태공원서

### ‘두 발로 걷GO!’ 행사 개최

강진군이 걷기 문화 확산과 군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두 발로 걷GO!’ 행사를 31일에 개최한다.

이번 걷기 행사는 강진의 대표 생태명소인 강진만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약 4.5km 걷기 코스 중합운동장(출발) → 코아루 아파트 → 강진 장례식장 → 생태공원 데크길 → 생태공원 자전거 대여소(도착) 순으로 진행된다.

‘두 발로 걷GO!’ 행사는 강진군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총 3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신청 방법은 강진군체육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걷기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간식이 제공되며 모든 코스를 다 돌고 완주한 참가자에게 한해 강진사랑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강진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건강한 걷기 습관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지역 주민 간 유대감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지역 명소와 연계한 코스를 지속 발굴해 걷기 중심의 건강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군은 지난 27일 보건소 2층 소강실에서 담양경찰서와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 제공>

## 담양군-담양경찰, 치매환자 보호 협력체계 구축

### 실종 예방·조기 발견 업무협약

담양군과 담양경찰서가 치매 환자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담양군은 지난 27일 보건소 2층 소강실에서 담양경찰서와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치매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실종 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긴

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조기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 정보 공유 ▲스마트 태그 등 배회감지기 보급·관리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수색·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진 담양군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화순 고향사랑기부 10명 중 9명 “재기부 의사”

### 농·축산물, 상품권 등 답례품 만족

화순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 중 10명 중 9명은 재기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재기부 의사를 밝혔다.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화순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 498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2059명(응답률 41%)이 응답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행정기관 홍보’가 688명(33%)으로 가장 많았다. ‘지인 소개’가 473명(23%)으로 뒤를 이었다.

화순군에 기부를 결정한 이유로는 ‘고향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859명(42%), ‘생활권이라서’ 469명(23%) 순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1872명(91%)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품목은 농·축산물 1130명(55%), 화순사랑상품권 599명(29%) 등의 순이었다.

일부 응답자들은 답례품의 다양화와 화순팜몰·고향사랑e음 사이트의 이용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부금의 사용 용도로는 재난·환경 등 주민복지 증진이 771명(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약계층 지원도 33%(678명)를 차지했다.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는 50대(35%), 지역은 광주(33%), 성별은 남성(52%)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창현 화순군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부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공감형 기부사업과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고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더 많은 기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나주시, 영산강정원 국가정원화 추진

### 전문 조경업체와 업무협약

나주시가 영산강정원의 국가 정원 지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유수의 전문 조경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나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나주시-JB가든센터-오앤오파하우스’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운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JB가든센터 김정범 대표, 오앤오파하우스 김근수 대표가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영산강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정원의 대표 공간 조성과 조경 연출,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충북 옥천에 소재한 JB가든센터는 농업회사법인 대립묘목농원을 운영하는 조경 전문업체다. 묘목 업계 핵심사업인 교육, 신상품 육성·개발, 조직 배양 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순천에 소재한 오앤오파하우스는 청년 스타트업으로 기존 수국의 단점을 보완한 신상품 아나벨 수국 ‘가든 스노우’ 품종을 개발·보유하는 등 대량 증식과 유통 판매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나무는 심는 것 이상으로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원 분야 최고의 전문성과 열정을 겸비한 양사 대표들의 역량을 영산강정원에 아낌없이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흥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 홍보 캠페인

장흥군보건소는 지난 27일 정남진 토요일장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알코올,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약물 등 다양한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군민들이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여 자발적인 중독 예방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실천 메시지인 ‘건강한 삶, 중독 없는 장흥군’을 바탕으로 중독 예방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또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중독예방 프로그램 안내, 알코올 사용장애 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등을 통해 군민 참여도와 관심도를 높였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중독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 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